

식민지배의 기억과 탈식민 서사*

— H. Ch. Buch의 ‘콜럼버스’ 소설 —

임 흥 배 (서울대)

1. 머리말

지중해와 구대륙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던 유럽의 열강들이 세계적 제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대륙의 발견은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유럽을 세계의 중심으로 사고하는 서구인의 역사적 기억에서 콜럼버스의 모험은 지리적 경계와 제약을 넘어서 세계를 ‘문명화’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의 자극제가 되었고, 미몽에 갇혀 있는 신천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무한한 도전과 가능성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대륙의 발견 이후 가속화된 식민지배의 역사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어디까지나 유럽중심주의적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콜럼버스 동시대인의 역사적 증언에 따르더라도 신대륙에 건너간 유럽인들은 이른바 ‘문명의 전도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콜럼버스 항해일지의 편찬자이자 신대륙 최초의 사제로 부임했던 카사스(Casas) 신부의 증언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신대륙에 건너온 지 불과 40년만에 아녀자들까지 포함하여 1200만 명의 원주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으며, 그처럼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한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황금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¹⁾ 하지만 식민지배의 실상을 인간적 양심으로 증언한 그러한 예외적 기록

* 이 논문은 2002년도 서울대학교 학제간 협동연구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식민지배를 문명화의 역사적 필연으로 이해하는 서구인의 통념을 뒤바꾸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제어불능의 제국적 팽창주의로 치달아온 식민지배의 역사가 말해주듯, 비서구에 대한 서구 제국의 지배는 어김없이 '문명화'의 약속을 식언하는 야만적 폭력을 동반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역사에서 거듭 확인되는 그러한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 목소리가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이르러서야 '탈식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식민지배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는 일이 여전히 그만큼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탈'식민주의가 식민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뜻으로 논의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식민주의 '이후' 시대를 상정하여 식민주의적 '유산'의 극복에만 관심이 쏠릴 경우에는 종전의 식민지배가 신식민주의적 지배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에 관해서는 총체적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어질 공간이 크다. 더구나 오늘날 서구적 근대화의 극복보다는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세계화의 대세가 신식민주의적 지배구조를 온존시키고 강화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단지 과거사의 재인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의 불균등한 세계질서를 그 역사적 뿌리로부터 파악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오늘날 논의되는 탈식민주의론의 역사적 전제를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68세대를 대표하는 독일의 현존작가 중에서 제3세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한스 크리스토프 부흐(H. Ch. Buch)의 최근작 『사후의 콜럼버스가 최후 심판의 날에 들려주는 이야기』²⁾를 살펴보고자 한다.

1) Vgl. Bartolomé de Las Casas: The Devastation of the Indies. A Brief Account, Baltimore 1992, S. 31. 카사스 신부(1474-1566)는 1512년 히스파놀라 섬(오늘날의 아이티 섬)에 처음 사제로 부임하여 그후 수십 년 동안 중남미 지역에 머물면서 유럽을 오가며 식민주의자들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했다. 1552년 출간된 앞의 책에서 카사스 신부는 히스파놀라 섬의 원주민들이 "천성적으로 지극히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같은 책, 28면) 사람들이라 적고 있다.

2) Hans Christoph Buch: Die Rede des toten Kolumbus am Tag des Jüngsten Gerichts, Frankfurt a. M. 1992. 앞으로 작품 인용은 본문에서 면수만 표기함.

II. ‘콜럼버스’ 소설의 서술전략 — 역사적 기억의 해체와 재구성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백주년에 때맞추어 1992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신대륙 발견을 근대사의 신기원으로 예찬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듯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묵시론적 연대기를 일종의 가상역사로 재구성함으로써 작가는 신대륙 발견의 유럽중심주의적 역사적 상징성을 전복·해체하기 위한 독특한 서술전략을 구사한다. 무엇보다 주인공 콜럼버스가 단일한 역사적 실명인물로 재현되지 않고 여러 명으로 다중화된 인물설정이 눈에 띈다. 작품에서 실명의 콜럼버스는 잠시 등장할 뿐이며, 콜럼버스 사후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제각기 상이한 시대를 배경으로 번갈아 출몰하는 것이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이티 섬으로 건너간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정복자들뿐 아니라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 탄압을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온 독일인 망명자가 콜럼버스의 분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중엽의 독일 작가로 마르크스와 함께 활동하다가 나중에 카리브해를 오가는 무역상으로 변신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 게오르크 베르트(Georg Weerth)의 행적에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 자신이 콜럼버스를 자칭하고 있다.

이처럼 콜럼버스를 상이한 시공간대의 복합적 인물군으로 분화시킨 의도는 우선 작품의 ‘프롤로그’에서도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내 이름은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이며, 나는 범행현장을 다시 찾아가는 범인이다.”(7)라는 소설의 첫 문장이 예고하듯, 작품에서 복수로 등장하는 콜럼버스들은 콜럼버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의 식민정복 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하면서 거듭해서 ‘재범’의 기회를 노리는 침략집단의 대표자들인 것이다. 신대륙 발견 이후 5백년의 역사가 다름 아닌 식민지배 5백 년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콜럼버스를 수없이 반복되는 ‘모방범죄’의 ‘원조’로 부각시키는 발상은 콜럼버스를 신대륙 발견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서구인의 일반적인 통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퇴색했다”(11)는 말처럼, 콜럼버스에 관한 후대의 역사서술은 서술대상의

실체마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진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나의 생애와 활동은 법원서기와 역사가들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겨져 왔으며,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한다.”(9)는 화자의 고백을 통해 작가는 콜럼버스를 신대륙 발견과 개척의 선구자로 기념비화하는 역사서술이 식민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허구임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 그러한 허구의 이면을 추적하는 방편으로 콜럼버스의 분신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작가는 서구인의 뇌리에 각인된 역사적 기억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일종의 대항기억(Gegen-Erinnerung)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화자의 발언은 서구인의 지배적 통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이 소설의 이야기조차도 식민지배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밝히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아무리 정당한 역사의식을 견지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서구인의 시각으로 식민지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작가가 처음부터 서구적 시각의 한계를 미리 밝히는 것은 물론 작가적 양심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식민지배의 역사가 한낱 과거지사가 아니라 형태와 방식을 달리하여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5백년의 식민지배 역사에도 불구하고 식민정복자 콜럼버스를 기리는 축제가 아메리카 대륙을 떠들썩하게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독자는 콜럼버스가 5백년 전 정복자의 망령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아 움직이는 실체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항구들이 저마다 콜럼버스와의 연고를 주장하며 신대륙 발견 5백주년 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소설의 화자로 현재에 등장하는 콜럼버스가 자신을 받드는 축제들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유령”(9)으로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을 주인으로 받드는 축제조차 외면하는 태도는 한편으로 식민지배의 죄과를 어이없이 망각할 만큼 철저히 왜곡된 역사적 기억과 그 기억대상의 어긋남을 가리키는 징후인 동시에, 다른 한편 현실의 세력으로 살아 있는 콜럼버스의 망령들은 결코 지난 역사의 기념비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정복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집념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망령이 스스로를 일컬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행자”(12)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결코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모험정신은, 서구인의 마비된 양심으로 보면 무한한 자유의 표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끝없는 정복욕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역사적 역할에 못지 않게 화자의 역할에도 충실한 콜럼버스는 “정복자들과 식민지배자들이 나의 사후에 내가 발견한 땅에서 자행한 모든 것에 대해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13)고 말한다. 콜럼버스의 이러한 자기모순적 태도는 물론 그에게 식민정복자들로 등장하는 작중인물인 동시에 그들을 관찰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화자의 역할까지 떠맡긴, 양립하기 힘든 이중적 역할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인물설정은 단순히 형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를 철저히 가해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작품의 기본구도에 연유한다. 가해자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거짓서술’이라면 그 거짓서술을 뒤집기 위한 서술전략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항변을 증언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 국한해서 말하면,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입지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공허한 가능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서구의 다른 열강에 비해 독일은 식민지배의 경험이 일천할뿐더러, 특히 작품의 주무대인 아이티 섬이나 카리브해안은 독일의 세력권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의 독일 작가가 자국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한 지역의 식민지배 역사를 현지인의 입장에서 서술한다면 아무리 작가적 양심에 충실하더라도 결국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 죄과를 말로만 대속(代贖)하는 수준의 추상적 동정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짐작컨대 이런 이유에서 작가는 다름 아닌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적을 증언하게 하는 교육지책을 택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진해서 퇴로를 차단하는 상황설정을 통해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한 안이한 관찰자적 접근의 여지를 아예 봉쇄하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천착하기보다는 목청만 높이는 비판자들을 가리켜 화자 콜럼버

스가 “항해장비도 없이 대양을 횡단하고 십자가와 성경만으로 무장하여 식민
종 무리와 맞닥뜨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는 아마추어들”(10)이라
고 냉소를 내뿜는 것도 그렇게 보면 단순한 자기변호만은 아니라 하겠다.

콜럼버스의 이러한 다중적 배역과 맞물려 있는 이 소설의 또다른 특색으
로 눈에 띄는 것은 역사적 연대기를 무시한 서술방식이다. 프롤로그에 이어
지는 제1부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작가가 직접 등장하여 이야기의 부제로
붙어 있는 ‘1987년 11월,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에서 겪은 사건을 실
화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실제로 제3세계 분쟁지역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르브 기행문을 쓰기도 했던 작가의 체험담으로 읽어도 무방하다. 여
기서 작가는 수십 년 동안 무자비한 독재권력에 시달려온 아이티 공화국의
무정부상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아이티로 탈출하는 독일인이 가공인물로
등장한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독일 작가 게오르크 베르트가
등장하여 유럽에서의 활동이 묘사되고, 이어서 신대륙에 건너간 이후의 행적
이 독일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부에서는 19세기 초반 아이티가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던 무
렵을 시대적 배경으로 여러 명의 식민정복자들이 콜럼버스 역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대기를 역전시킨 이유를 화자는 “나는 결코 벌어진 적이 없
는 사건을 끝에서부터 이야기하겠다”(17)는 말로 집약하고 있다. 서구중심의
역사서술이 비서구에 대한 식민화 과정을 근대화 내지 문명화의 논리로 정당
화하고 있다면, 이 소설은 그러한 역사서술의 시나리오에서는 배제된 이야기
를 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이야기하겠다’는 단서 역시 서구중
심의 역사서술에 의해 구축된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역사의 진행
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명확히 대비시킴으로써 그리
한 시나리오의 허구성을 드러내려는 서술전략을 암시한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역사서술이 아무리 객관성을 표방하더라도 서술주체의
관점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역사서술이 객관적 사실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언어적 가

공물 verbal artifact³⁾이라고 보는 이른바 메타역사(Metahistory)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역사진행의 자명한 기원과 목적을 미리 설정하여 그 처음과 끝을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연결하는 ‘플롯화’(emplotment)를 해체하기 위한 서술전략이라 할 수 있다. 호미 바바(H. Bhabha)에 따르면 그러한 서술전략은 식민주의 논리에 의해 구축된 플롯의 정당성을 교란하면서 역사적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야기의 서술시간을 불안정한 현재의 연쇄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배 주체의 견고한 정체성 역시 자기모순의 은폐 위에 구축된 불안정한 가공물이라는 것이 밝혀진다.⁴⁾ 소설의 화자가 “우리가 기억이라 일컫는 것은 좀더 고상한 방식의 망각”(34)이라거나 “시간의 이빨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갉아 먹어버렸다”(17)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구인들에게 자명한 듯이 구축된 역사적 기억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언제든지 형해화될 수 있는 가공의 기억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작가는 서구인의 역사적 기억에서 신대륙 발견의 영웅으로 각인된 콜럼버스로 하여금 “나의 내면에 이미 오래 전에 암의 종양처럼 들어앉은 (...) 혼돈”(34)을 실토하게 하거나,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정형화된 콜럼버스의 역사적 정체성은 그러한 혼돈을 배제한 대가로 얻어진 거짓된 질서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비판적 화자로서의 콜럼버스는 심지어 “실제로 내가 발견한 것은 인도도 아니고 아메리카도 아닌 저승으로 통하는 입구”(15)라고 언명함으로써 콜럼버스의 과업을 계승한 신대륙 진출의 역사가 문명과 복음의 전파는커녕 야만적 파괴와 죽음의 역사로 점철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콜럼버스 역으로 등장하는 작중 인물들은 ‘황금의 지상낙원’을 꿈꾸며 신대륙으로 건너가지만 예외 없이 연옥의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연옥의 풍경을 연출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3) Hayden White: Tropics of Discourse.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1978, S. 122.

4) Vgl. Homi Bhabha: Die Verortung der Kultur, Tübingen 2000, S. 207ff.

III. 식민주의의 안과 밖

III.1. 죽음의 땅 아이티

아이티의 역사에 어두운 독자의 입장에서는 소설의 주무대인 아이티를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나라로 연상하기 쉽겠지만, 작품에서 아이티의 현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프롤로그에 이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1987년의 시점에서 아이티 공화국의 현실을 찢막한 스케치로 증언하고 있는데, 작가의 분신인 서방 취재기자의 눈에 포착된 현실은 아버지규환의 생지옥 그 자체다. 독재정권의 친위부대인 '통통 마쿠테'(Tonton Macoute)의 무장군인들이 백주에 총을 마구 쏘아대며 대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민간인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집단 학살극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취재기자 자신도 무장군인들에 의해 대낮에 강도를 당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총질에 노리갯감이 되는 곤욕을 치른 끝에 겨우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온다. 서구의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 중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1804년) 독립한 아이티 공화국에서, 그것도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는 이 당혹스런 의문에서 한시도 놓여나지 못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서방기자의 이 충격적인 '체험담'을 통해 작가는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이티 섬에서 그의 사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되묻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도발적인 문제제기의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현재의 시점에 국한해서 이 불가해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아이티 공화국의 현대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 2차대전 이후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그러했듯 아이티 공화국에도 독재체제가 들어섰다. 의사 출신의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F. Duvalier)는 1957년 대통령이 된 후 선거

5) Vgl. David Nicholls: From Dessalines to Duvalier. Race, Colour and National Independence in Haiti, New Brunswick 1996, S. 212ff.

조작으로 임기를 연장하다가 1964년부터 종신 대통령이 되어 1971년 죽을 때까지 철권통치를 휘둘렀다. 일명 ‘파파 독’(Papa Doc)이라 불린 그는 앞에서 말한 사병조직을 만들어 정적들을 제거하고 테러를 일삼았으며, 그의 사후 권력을 계승한 아들 장 클로드 뒤발리에 역시 무자비한 폭압정치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소설의 현재 시점인 1987년 바로 전해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베이비 독’(Baby Doc)은 권좌에서 쫓겨났지만, 정국의 혼란을 틈타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무장군인들이 투표하려는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은 군부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방해하려는 책동의 일부인 것이다. 소설에서 서방기자가 목격한 학살은 소설의 허구가 아니라 1987년 아이티 공화국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인 것이다. 것처럼 정치적 테러나 온갖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주검이 버려지는 ‘쓰레기장’의 참혹한 광경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곳은 공동묘지, 해골의 땅이다. 이곳의 땅에는 시체로 거름을 준다. 들개들이 깊은 구덩이를 파헤쳐서 죽은 자들의 유골을 주위의 땅에 흩어놓았다. 대퇴골, 관절뼈, 이빨이 붙어 있는 턱뼈, 그리고 퇴약별에 바래어서 다양한 단계로 부식 중인 두개골들이 나뒹굴었다. (...)

매주 금요일 아침 해뜰 무렵이면 시 당국의 청소차가 시체 더미를 이곳에 내려 놓는다. 부랑자와 거지들, 어린아이와 노인네들, 일반 범죄 혹은 정치범으로 희생된 자들, 연고자가 없거나 당국에 의해 신원미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그런 희생자들이다. 죽은 자들은 구덩이 속에 내던져지고, 시체 더미 위를 이리저리 오가는 불도저가 시체들을 땅 속으로 눌러 넣는다. 그들은 그들의 대다수가 평생 토록 살아온 터전인 바로 그 쓰레기장에서, 재활용 가치도 없는 폐기물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Dies ist ein Massengrab, eine Schädelstätte; die Erde hier ist mit Leichen gedüngt. Streuende Hunde haben tiefe Löcher gegraben und die Überreste der Toten über das umliegende Gelände verstreut: Schenkelknochen, Gelenkpfannen, Unterkiefer mit Zähnen und von der Sonne ausgebleichte Schädel in verschiedenen Stadien des Zerfalls. (...)

Jeden Freitagsfrüh, vor Sonnenaufgang, liefert ein Lastwagen der Stadtreinigung eine Ladung Leichen hier an: Obdachlose und Bettler, Kinder

und Greise, Opfer gewöhnlicher und politischer Verbrechen, die keine Angehörigen haben oder von Staats wegen anonym bleiben sollen. Die Toten werden in eine Grube geworfen und von einem Bulldozer, der über dem Leichenhaufen hin und herfährt, unter die Erde gepreßt. Sie enden dort, wo die meisten von ihnen schon zu Lebzeiten waren: auf dem Müll, als Schrott ohne Wieder- verwendungswert. (30f.)

이렇게 '재활용 가치도 없는 폐기물'로 매장되는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무덤이 될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는 극악한 조건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권력의 폭력에 짓밟힌 그들의 삶이 생지옥과 다름없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겐 죽음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27) 같은 이유에서 “죽은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있는 자들이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피를 흘린다.”(26)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조차도 “만삭의 죽음이 무수한 작은 죽음들을 출산하여 죽음과 탄생의 운무(輪舞)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21f.)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화자는 첫 번째 이야기의 서두에서 “아이티에서 나는 내 자신의 죽음과 조우하였다”(21)고 말한다. 아이티에서 목격되는 참혹한 죽음들의 역사적 연원을 이 섬의 발견자 콜럼버스 자신의 죽음과 등치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시간대의 중첩은 지금 시점에서 아이티의 일상적 현실로 난무하는 죽음의 폭력이 궁극적으로 콜럼버스의 과업을 계승한 자들에 의해 이 땅에 이식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아이티에서의 죽음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는 “의복도착증 환자 Transvestit”(21)에 비유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로써 작가는 오늘의 아이티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죽음의 역사를 역사적 기억에서 되불러오려는 것이다. 화자는 서구 중심의 발전사관을 반어적으로 인용하여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진보는 불가역의 과정이며 (...) 개명한 20세기에 암흑의 중세로의 퇴행은 상상도 못할 일”(33)이라고 탄소리를 함으로써 실제 역사가 그러한 통념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III.2. 식민지배의 유산

두 번째 이야기는 시점을 이동하여 아이티를 죽음의 땅으로 만든 독재권력의 형성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크리스토프’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독일인이다. 그의 부친은 1차대전 이전에만 해도 황실의 기병대장까지 지냈지만, 히틀러가 비인을 점령한 이후 주인공은 모계 쪽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초를 겪고, 처음에는 탄압을 피해 유럽대륙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이티 섬으로 건너간다. 이 가공인물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실제 역사가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종의 가상역사로 재구성된 것이 두 번째 이야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인공을 유럽에서 추방시킨 폭력적 지배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아이티의 현실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유럽을 떠나 첫발을 내디딘 땅은 정확히 말하면 아이티 공화국이 아니라 아이티 섬의 동쪽에 자리잡은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일찍이 이 섬을 선점하여 식민통치를 시작한 것은 스페인이지만 나중에 프랑스가 섬의 서쪽을 침략하여 식민화한 지역이 곧 나중의 아이티 공화국이다. 소설의 주인공이 이 섬에 상륙한 20세기에 도미니카의 전사(前史)는 유럽인들이 건너 오기 전에는 원주민의 땅이었던 하나의 섬이 두 개의 국가로 분할된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분할이 결코 원주민 내부의 갈등에 연유하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유럽대륙의 내적 모순이 자본의 생리에 따라 폭력적으로 전가된 것임을 화자는 두 나라의 관계로 증언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아이티 공화국에서 끌려온 흑인 노동자들이며, 다시 그들의 조상은 유럽의 정복자들이 이곳의 원주민을 ‘인종청소’한 다음 그 노동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흑인 노예들이다. 그들의 후손이 유배지인 아이티의 이웃 나라에 다시 팔려가 도미니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미니카에 도착한 주인공 화자는 카톨릭 교회의 전도사로 위장하여 도미니카를 통과해서 아이티로 가는 도중에 그들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목격한다. 도미니카 군인들은 농장이 있는 푸른 평원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흑인 노동자들을 급습하는데, '파슬리'라는 식물 이름을 스페인어 *perejil*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군용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끌고 가며, 주거지를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사지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차린 흑인 노동자들이 도망을 가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거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리하여 푸른 평원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는 "화염과 죽음의 지옥"(65)이 연출된다. 이어서 이 지역을 통과하여 아이티 점령지대의 강가에 이른 화자는 군인들에 의해 끌려간 흑인들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한다. 피에 물든 이 강이 2백 년 전부터 '학살의 강 Rio Masacre'이라 불려진 이유가 생생히 확인되거나, 그 강은 2백 년 동안 반복되어온 학살의 말없는 증인인 것이다. 화자가 목격한 학살은 흑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킬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도미니카 당국이 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국인 아이티의 상류층 언어인 프랑스어도 모르는 흑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발음할 리 없는 도미니카의 상류층 언어 스페인어를 살생부로 들이대는 것은 이런 식의 학살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행되는 무법천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아이티에 당도한 화자는 그의 현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될 피에르 루멜(P. Roumel)이라는 프랑스인에게서 학살의 뒷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학살로 1만 5천여 명의 아이티 출신 흑인 노동자들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자 도미니카의 독재자는 7만 5천 달러의 수표를 아이티 대통령 궁에 보상금 명목으로 건네준다. 희생된 노동자 한 명의 목숨 값이 정확히 50센트인 셈이다. 이처럼 이웃 나라에 노예로 팔아넘긴 흑인 희생자들의 목숨 값을 챙겨서 배를 채우는 아이티의 현실은 더더욱 기가 막히는데, 그 점은 소설에서 주인공 화자의 불가사의한 변신과 맞물려 있다.

주인공의 변신을 매개하는 인물은 그의 후견인 루멜이다. 원래 프랑스의 민속학자인 그는 아이티의 권력층에 의해 서방문화의 전파를 구실로 파괴되는 원주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티에 건너와 있다. 아이티가 프랑스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식민지배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재의 권력층은 서방세력을 등에 업고 토착문화의 파괴를 일삼았던 것

이다. 특히 집중적인 공격목표가 되는 토착문화의 하나는 일찍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아이티에 뿌리내린 아프리카 토착신앙인 부두교(Voodoo)인데,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쪽에서는 이 ‘야만인들의 미신’을 근절하기 위해 부두교 사원에 불을 지르고 부두교의 종교적 상징물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한다. 부두교를 섬기는 흑인들이 아이티에서 파리 목숨만도 못한 흑인 하층민들임을 상기하면, 문화재 파괴는 물리적 폭력지배의 이면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 문화의 보호자’를 자임하는 루멜은 주인공에게 부두교의 사제가 되어 부두교의 종교적 상징물을 수집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데, 물론 루멜의 속셈은 그렇게 수집한 문화재들을 프랑스의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실속과 명분을 함께 챙기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두교 사제가 된 주인공은 부두교의 종교적 상징물뿐만 아니라 콜럼버스 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기한 문화재들을 대량으로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흑인과 원주민들은 기독교 세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주겠다는 주인공이야말로 부두교의 구원자라 믿고 온갖 진기한 문화재들을 자진해서 헌납하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값진 보물들을 공짜로 거둬들인 주인공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 ‘아이티 무역회사 Haiti Trading Company’를 설립하고 대통령궁 인근의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진 초호화 저택에서 사는 그는 2차대전 후에는 도미니카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등지에도 지사를 설치하여 중남미 전역의 문화재를 서방에 수출하는 국제적인 갑부가 되는 것이다. 유럽에 있던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맨손으로 신대륙에 건너온 인물의 놀라운 변신을 전설처럼 들려주는 이 가공의 이야기는 정치적 식민지배 이후에도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지배가 자본을 매개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아이티의 권력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그런 사정과 맞물려 있다. 특히 나중에 아이티의 독재자가 될 ‘파파 독’과의 기연이 그러하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해진 주인공은 루멜의 추천으로 ‘파파 독’을 고용하는데, 그렇게 주인공의 부하가 되던 무렵의 그는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한 의사이면서 정체불명의 잡

지에 선동적인 글을 기고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히틀러와 스탈린, 드 골과 뭇솔리니, 예수와 모하메드 등 온갖 역사적 인물과 종교의 창시자를 자신의 논거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자신이 바로 칼리프의 화신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이처럼 온갖 이념의 혼합물로 자신을 이상화하는 '파파 독'은 루멜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루멜의 노선에는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루멜은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는 '파파 독'의 글을 실어주지 않는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 '파파 독'을 루멜이 주인공에게 떠넘긴 것은 '파파 독'이 아무리 기상천외로 돌출하는 인물이어도 주인공의 자본과는 궁합이 맞을 거라는 계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부두교 역시 '파파 독'이 표방하는 이념 중의 하나인 만큼 현지인들에게 부두교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는 주인공과 결합될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의 회사에 심복으로 고용된 '파파 독'은 대단한 사업수완으로 주인공을 만족시킨다. 그런데 실은 '파파 독'이 사병조직인 '통통 마쿠테'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를 해고하려고 하지만, 정작 해고를 당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사퇴한다. '파파 독'이 정부의 요직에 발탁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주인공과 그의 관계는 역전된다. 권력의 실세가 되어 이전보다 더 공공연하게 자신을 이상화하고 노골적인 폭력을 일삼는 '파파 독'은 주인공에게 수시로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밤중에 '파파 독'이 주인공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프랑스로 '여보게 친구 mon ami'라고 인사를 하면 얼마를 내놓으라는 뜻이고, 또 '친애하는 친구 mon cher ami'라고 하면 그 두 배의 금액, 그리고 '정말로 친애하는 친구 mon très cher ami'라고 하면 세 배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달라는 뜻이다. 이 마피아식 거래가 독재권력과 자본의 공생방식을 말해주는 에피소드임은 물론이다.⁶⁾ 다른 한편 아이티의 시민이기도 한 주인공의 입장에서 파파 독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주인공이 어느 날 파파 독에게 '기

6) 나아가서 주인공 크리스토프의 자본이 식민지 수탈을 통해 축적된 것임을 상기하면 여기서 제3세계 독재권력과 초국적 자본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독재권력의 폭력성이 자본의 운동에도 방해가 되는 양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부금 영수증'을 요구하자 그는 대답 대신 주인공에게 '외국의 대사 자리에 관심이 있느냐'며 관직을 제의하는데, 주인공이 질겁을 하며 그 제의를 사절하는 것은 그 사이에 파파 독의 정적으로 지목된 친구 루멜이 쿠바 대사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는 길에 독살되었기 때문이다. 파파 독이 보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이미 그런 방식으로 정적으로 제거한 터에 이제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파파 독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노골적인 암살 위협인 것이다. 무명시절의 의사 파파 독은 주인공에게 '2만 명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자랑한 적도 있는데, 당시에는 '의사'로서의 능력을 자랑하는 말로만 알았던 주인공은 독재자 파파 독의 치하에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게 된다. 파파 독은 무자비한 학살 자체로도 모자라서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에 정치범 처형장면을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등의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것이다.

파파 독의 공포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아이티에서는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경제가 회복불능으로 파폐해지는 극한상황이 초래되고, 이 곤경을 돌파하기 위해 파파 독은 주인공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다. 아이티 대통령의 외교사절로 프랑스를 가서 드 골 대통령에게 아이티를 국민으로 방문해줄 것을 요청해달라는 것이다. 2차대전 이전까지 아이티의 통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자본이 철수함에 따라⁷⁾ 이제는 유럽 쪽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 골의 아이티 방문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파파 독의 명을 아이티 탈출의 기회로 삼은 주인공은 미리 자신의 수집품을 푸에르토리코로 빼돌리고 그곳에 몰래 잠입하여 사업을 계속하며, 십 년 후에 파파 독이 죽을 때까지 아이티에 돌아가지 않는다. 파파 독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베이비 독'이 권력을 계승한 다음에

7) 2차 대전 이전에 아이티는 미국의 반(半)식민지로 예측되어 있었고, 미국이 아이티의 무역통상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거의 20년 동안(1915~1934) 미군이 상주했다. 과거의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파파 독' 역시 집권 과정에서는 미국의 후광을 등에 업었지만, 집권 후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외교적 봉쇄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세력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Vgl. D. Nicholls: a. a. O., S. 142ff.

다시 아이티를 찾아간 주인공은 '18세의 플레이보이'인 '베이비 독'이 "선친이 정치혁명을 했다면 나는 경제혁명을 하겠다"(83)고 호언하는 것을 듣지만, 그의 호언장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는 이미 소설의 서두에서 '1987년 포르토프랭스'의 현실로 증언된 바 있다.

아이티의 이 모든 현실이 오랜 식민지배의 직접적 유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주인공의 행적에서 보듯이 문화적 식민주의가 자본의 운동과 결합되고, 자국의 하층민을 노예 노동자로 수출하며, 무엇보다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말살하는 그 모든 사태는 식민지배의 폭력이 형태와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되는 양상인 것이다. '식민 이후' 시대에도 여전히 식민주의를 문제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아이티로 돌아온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아이티 주재 명예대사로 임명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발트하임(Waldheim)이 대통령에 선출되자 대사 직을 반납한다.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목은 주인공이 유럽에서 탈출할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알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발트하임은 일찍이 나치에 부역한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주인공이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여한 명예대사 직을 사퇴한 것은 일찍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유럽에서 몰아낸 집단적 폭력이 바로 그 피해자들에 의해 망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 나름의 항변인 셈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의 꿈 이야기는 그런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빌딩의 유리창 청소부가 되어 고공의 줄에 매달려 있다.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회의장에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발트하임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구상에 "인권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날의 인권침해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없다"(84)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나치 부역 전력을 은폐하고 지금도 지구상의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종학살을 외면하는 그러한 위선에 의해 오늘날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매달려 있던 줄에서 떨어져 추락하는데, 꿈과 현실의 분간이 모호한 채 그 추락 때문에 아마 자신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

는 주인공/화자의 ‘추정’은 꿈에서 본 장면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임을 상기시켜 준다. 또한 이 꿈은 주인공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던 당시 선상에서 꾸었던 꿈과도 이어져 있다. 그 꿈에서 주인공은 갑판에서 고래사냥을 하다가 작살에 걸린 고래의 요동 때문에 고래의 아가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데, 다행히 고래가 숨을 토해내어 다시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가 고래의 몸부림에 파손되어 침몰하고 있다. 이 고래 이야기가 식민 지배의 가해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파국적 공멸을 암시하는 알레고리임은 물론이다. 주인공이 체험한 아이티의 참담한 실상, 그리고 꿈과 현실이 착종된 주인공의 마지막 추락사는 신대륙에 건너가던 당시 꾸었던 악몽의 실현인 것이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 ‘고래 배속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두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카프카의 소설 『심판』의 마지막 구절을 차용하여 “내가 죽은 뒤에도 치욕은 살아남을 것만 같았다”(85)는 말로 끝난다. 그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지 않는 한, 주인공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잔혹의 역사가 또다른 인물들의 삶에서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이다.

III.3. 서구중심주의의 허상과 식민주의의 뿌리

소설의 제2부에서는 1부에서와 달리 중남미의 현실에 대한 묘사는 희미한 배경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19세기 중엽의 독일작가 게오르크 베르트의 행적 중에서 몇몇 단면이 제시된다. 우선 실명의 작가를 작중인물로 등장시킨 의도는 베르트의 특이한 경력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베르트는 엥겔스에 의해 ‘독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작가’라는 평을 받을 만큼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문필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생계의 방편으로는 함부르크 무역회사의 유럽지역 주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자청하여 중남미 지역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결국 소설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중남미에 체류하던 당시 황열병에 걸려 34세의 젊은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베르트의 이러한 이력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직업상의 역할에 의해 자유무역을 옹호하기도 하는 자기모순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한편 카리브해로 건너간 다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은 소설에서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화자이자 주인공인 베르트 자신의 말을 빌면 그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유럽의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주력하는 자본가 단체의 '정회원'인 동시에 '공산주의 동맹'의 일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쪽 모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그는 "자유무역의 전위투사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전위투사"(96)임을 자임하지만, 하나의 인격체에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모순은 애매한 절충으로 간신히 봉합될 수밖에 없다. 베르트는 유럽 각국의 자본가들이 관세장벽의 철폐와 자유무역을 촉구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연사로 나서서 왜 이 자리에 노동자 대표는 없는가, 노동자는 유럽문명의 파괴이다, 하는 등의 선동적인 연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자유무역의 전위투사'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소설에서는 짧게 인용된 실제 연설문을 보면 베르트는 '자유무역을 단호히 지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나 자유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무역이 가속화되면 결국 생산과잉과 노동력 잉여로 인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도 개선될 수 없고 자본 축의 위기도 심화될 거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연설을 끝맺고 있다.⁸⁾ 듣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어야 세계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처럼 베르트의 이념적 자기모순이 오히려 혁명의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둔갑하는 양상은 '혁명을 위한 희생'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혁명 이후의 새로운 억압을 정당화하는 지배논리로 끌어들이는 20세기의 수많은 혁명들에서 역사의 비극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그런 문제의식은 제2부의 끝에서 짧게 암시되고 있다. 주인공 베르트가 쿠바의 아바나를 향해 가다가 선상에서 죽은 지 125주년이 되는 해에 아바나의

8) Vgl. G. Weerth: Rede auf dem Freihandelskongress in Brussel, in: Michael Vogt (Hg.): Georg Weerth-Lesebuch, Bielefeld 1996, S. 82ff.

국립묘지에서는 게오르크 베르트의 묘비 제막식이 열리는데, 그 자리에는 뜻밖에도 쿠바의 통치자 카스트로와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함께 배석해 있다. 그런데 소설의 화자로 이 장면을 지켜보는 베르트의 유령은 자신을 기리는 대리석 흉상이 “나하고 닮은 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180)고 말한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자국의 인민에게 빈곤과 억압만 안겨준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프로레타리아 시인’ 베르트를 기념비화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꼬집는 것이다. 한 세기 뒤에 자신의 삶에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곳에서 정작 한 세기 전에 베르트가 행한 일은 ‘세계혁명의 전위투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조셉 콘라드가 『어둠의 속 Heart of Darkness』에서 말한 그 ‘암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베르트는 스스로 염증을 느껴서 떠나온 유럽에 대한 향수에 빠져들면서 유럽과 중남미를 문명과 야만의 도식으로 양분하는 서구중심주의에 깊숙이 빠져든다. 작가가 베르트의 행적에서 문제삼는 두 번째 측면이 바로 이 점이다.

우선 베르트가 유럽대륙을 떠나는 동기부터가 석연치 않다. 소설에서 베르트는 프랑스 망명 중에 우연히 마주친 신비의 여인 롤라 몬테즈(R. Montez)⁹⁾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카리브해로 건너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소설의 곳곳에 등장하는 이러한 환상적인 요소는 물론 대부분의 독자에게 기정사실로 인지되어 있는 역사적 기억을 허구로 해체하기 위한 서술전략의 일부이다. 그런데 르뽀와 전기, 역사소설과 환상소설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이 소설에서 환상적 요소는 근대소설의 전사(前史)에 해당되는 로망스 양식을 일종의 하위장르로 편입시킨 것이기도 하다. 로망스가 중세 기사들의 연애 모험담임을 상기하면, 작중의 베르트가 신비의 여인에 이끌려 인생을 바꾸는 모험에 나서는 상상설정은 1830년 혁명의 좌절을 통해 자신이 신봉하던 이념의 파산을 일찌감치 경험한 베르트가 유럽에서 소진된 삶의 의미를 충전하기 위

9) 실존 인물 롤라 몬테즈는 아일랜드 출신의 무용수로 19세기 중엽 바이에른의 국왕 루트비히 1세의 총애를 받았다. 돌출 행동을 일삼는 그녀에게 루트비히 1세가 백작 작위를 수여하자 내각이 사퇴하는 등의 소동을 벌인 끝에 결국 그녀는 바이에른 궁정에서 쫓겨난다

해 문자 그대로 낭만적 모험을 꿈꾸며 신대륙으로 건너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베르트가 찾아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몬테즈가 스코틀랜드 남성과 크리올(Kreol)계¹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사실은 그의 모험정신을 한층 부추기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베르트의 내적 논리를 좀더 일반화시켜 보면, 계보를 추적할 수 없는 몬테즈의 인종적 혼종성은 자기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유럽적 자아가 이국적인 것의 포섭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의 포획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정작 베르트가 신대륙에 건너가서 접하는 '소문'들은 그의 기대와 어긋난다. 몬테즈가 '부두교'의 지도자로 변신하여 멕시코 혁명에 가담했다는 소문을 듣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의 금광촌에서 유흥가의 댄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소문도 접하는 것이다. 베르트 자신의 인생편력이 납득하기 힘든 만큼이나 몬테즈에 관한 상반된 소문 역시 그러하지만, 분명한 것은 몬테즈에 관한 이 엇갈리는 소문 역시 베르트의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지식인' 베르트의 주관적 의식 속에서 '미의 화신'이라고 믿는 관념의 실체가 유럽의 바깥에서는 유럽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이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몬테즈에 관한 상반된 소문은 베르트가 자신의 '이념'을 배반하고 '욕망'에 충실함으로써 분열된 내면의 다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몬테즈가 '미의 화신'이기를 갈망하면서도 현실에서 그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베르트는 현지 고용인이 '주인'에 대한 예우로 '몸종'으로 바친 원주민 여성 레티치아(Letitia)와 사랑을 차리고 그녀를 상대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쾌락에 탐닉하며, 레티치아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생긴다. 그렇지만 몬테즈에 관한 최근 소식을 접한 베르트는 다시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금광촌의 유흥장에서 춤을 추는 몬테즈를 보게 된다. 하지만 몬테즈가 춤의 마지막에 이르러 베르트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출 듯하다가 따귀를 때리고 퇴장함으로써 베르트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난다. 잃을 것은 관념밖에 없는 베르트에게 그것은 단지 주관적 관념 속에 구축된 허상

10) 카리브해 연안에서 유럽계 백인과 아프리카계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을 통칭하는 말.

의 붕괴에 불과하지만, 그런 관념의 ‘주인’을 생존을 위해 섬겨야 하는 현지인의 운명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베르트에게 버림받은 처지이면서도 그의 부재중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게오르크’라는 세례명을 지어주고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레티치아는 고향인 아이티로 돌아가지만, 선상에서 아이는 열병으로 죽고 그녀 자신도 아이티에 당도하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굶어죽고 만다. 뒤늦게 미국에서 돌아와 아이티를 찾아간 베르트는 레티치아가 감옥에 갇힌 사연을 전해듣게 된다. 그 무렵 아이티의 황제 솔루크(Soulouque)는 연고가 없는 외래인을 탄압하고 특히 여성들은 황제의 몸종으로 삼거나 사창가에 팔아 넘겼으며, 당국의 명령에 불복하는 여성들은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던 것이다. 황제의 폭정을 베르트의 지인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솔루크 황제의 신민(臣民)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죽을 수 있는 권리지요. 그렇지만 자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입니다. (...) 아이티에서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숨쉬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황제의 어전에서 헛기침을 한다거나, 궁성에서 내다보이는 거리에서 모자를 벗지 않고 지나가는 자는 황제 모독죄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집니다.

Das einzige Recht, das die Untertanen des Kaisers Soulouque noch haben, ist das Recht zu sterben, aber der natürliche Tod ist ein Privileg, das wenigen Auserwählten vorbehalten bleibt (...) In Haiti ist alles verboten, sogar das Spaziergehen und das Atmen; wer sich in Gegenwart des Kaisers räuspert oder in Sichtweite seines Palasts vorbeigeht, ohne den Hut zu ziehen, begeht einen Akt der Majestäts-beleidigung, der mit dem Tode bestraft wird.(168)

20세기의 파파 독을 예견케 하는 이러한 폭압정치는 19세기 중엽 아이티와 도미니크의 수십 년에 걸친 내전으로 더욱 가중되었고, 베르트가 아이티에 당도한 시점이 바로 그 무렵이다. 스페인령 도미니크를 20년 넘게(1821-1844) 점령했던 아이티의 독재권력은 그 후로도 도미니크와의 갈등을 국내 탄압의 기회로 악용했던 것이다. 가령 앞에서 언급된 솔루크 황제는 전

세가 불리해지면 ‘내부의 첩자’ 때문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정적들을 처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베르트 자신도 수상한 인물로 몰려 유치장에 갇혔다가 영국 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긴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쓰디쓴 환멸뿐이다. 유럽을 ‘속물의 세계’라고 욕하던 그는 과거에 독일에서 잠시 마주친 여성 베티(Betty)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럽 문명에 대한 향수를 간절하게 표현하며, 독일에 머물던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녀를 ‘아름다운 헬레나’라 부르며 청혼까지 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베르트의 충동적 방랑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소박하고 정숙한 여성 베티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은 신대륙의 모험에서 환멸만 남은 그가 이젠 스스로 경멸해 마지않던 비더마이어적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귀의 객이 되지만, 설령 살아서 돌아갔다 한들 평범한 소시민의 가장이 될 기회나마 주어졌을지 의문이다.

소설의 제3부에는 아이티가 독립하기 전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아이티에 어째서 처음부터 폭군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다뤄지고 있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댓가로 식민지배의 질곡에서 벗어났지만 정작 그들이 피흘려 쟁취한 자유란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자유”(176)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되찾은 권리라는 것도 기껏해야 폭력에 희생되지 않고 제명대로만 사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할 권리가 전부다. 특히 독립 초기의 정권은 백인통치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백인들을 학살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무차별적 인종보복 또한 흑인노예를 비롯한 하층민에 대한 강압적 통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당시보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소설의 3부에서 식민지배의 막바지 국면 혹은 더 소급하여 식민지배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 거듭 묘사되는 집단학살은 식민지배 초기부터 식민지 주민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식민지배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학살극 중에는 아이티 총독부의 프랑스 군대가 황열병이 발생한 프랑스 이주민 정착촌을 봉쇄하여 수백 명의 자국민을 몰살시킨 사건도 있다. 식민 지배자들이 식민지에서 휘두른 폭력은 대상을 가리

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콜럼버스 ‘신화’의 진짜 주인공인 콜럼버스 당대의 식민 지배자들이 아라와크(Arrowak) 인디언들을 금광의 강제노동으로 혹사하여 불과 30년 만에 부족 전체를 멸족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서구인들이 ‘콜럼버스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 경축일처럼 기념하는 콜럼버스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한 화자/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콜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에 사용했던 산타 마리아 호의 녹슨 닻이 지금도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그 닻을 발견한 장소 부근에는 39명의 유골이 매장된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원주민 학살을 시작한 ‘주범’은 바로 콜럼버스 자신인 것이다. 소설의 이 마지막 대목에 이른 독자는 이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을 수밖에 없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이야기만 다룬 이 소설 속에 들어오지 못한 식민지배의 거대한 폭력의 역사를 망각된 기억에서 다시 불러내야 하는 것이다.

IV. 맺는말

이 작품에는 소설에 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여러 요소가 혼재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인물들의 운명에 공통된 서사의 기본구조는 탈식민주의 문학의 정전으로 거론되는 조셉 콘라드의 『어둠의 속』의 그것과 흡사하다. ‘콜럼버스’ 소설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고래를 잡으려다 고래한테 잡아먹히는 꿈 이야기가 ‘어둠의 속’을 압축한 알레고리라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과 베르트의 운명은 그 알레고리를 한 개인의 운명과 겹쳐진 역사의 드라마로 엮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둠의 속』에서 쿠르츠(Kurtz)는 ‘국제야만풍속퇴치협회’라는 단체에 ‘문명화’의 소명을 강변하는 보고서들을 보내고 문명의 ‘이념’이야말로 자신이 ‘암흑의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가 콩고의 오지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과업은 닳치는 대로 상아를 약탈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화자인 말로우(Marlow) 선장은 죽을 고비를 넘기

며 콩고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정신적 '사부'이자 사업상의 '선배'인 쿠르츠 선장을 만나지만,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쿠르츠 선장은 '끔찍하다'는 단 말마의 절규를 내뱉고는 숨을 거둔다. 이 소설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문제작인 이유는 서구인의 시각으로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둠'이 비서구를 서구의 타자로 배제하고 정복하려는 서구인의 음험한 욕망 자체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작가 자신의 의도까지 넘어서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쿠르츠 선장의 마지막 절규는 문명의 가면을 쓰고 야만적 약탈을 자행한 자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 '이념'의 파산과 욕된 삶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콜럼버스' 소설의 작가는 19세기말의 콘라드가 직감했던 그러한 문제의식이 '개명한 20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계몽의 신화가 억압을 정당화하고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가 한층 복잡하게 뒤얽힌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을 거듭하면서 작가가 말하려는 핵심은 무엇보다 서구인들 자신이 스스로를 '낯선 존재'로 보자는 것이다. 서구의 바깥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배척함으로써 정립된 서구적 자아의 정체성은 자멸의 파탄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묵시론적 화두를 던지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서구화를 곧 역사의 진보와 동일시하는 서구중심의 근대화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축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일차문헌>

Buch, Hans Christoph: Rede des toten Kolumbus am Tag des Jüngsten Gerichts, Frankfurt a. M. 1992.

<이차문헌>

Bhabha, Homi: Die Verortung der Kultur, Tübingen 2000.

Bronfen, E./Marius, B. (Hg.): Hybride Kulturen. Beiträge zur anglo-amerikanischen Multikulturalismusdebatte, Tübingen 1997.

Casas, Bartolomé de Las: The Devastation of the Indies. A Brief Account, Baltimore 1992.

Chambers, Ian: Migration, Kultur, Identität, Tübingen 1996.

Lützler, Paul M. (Hg.): Der postkoloniale Blick, Frankfurt a. M. 1997.

Nicholls, David: From Dessalines to Duvalier. Race, Colour and National Independence in Haiti, New Brunswick 1996.

Reinhard, Wolfgang: Kleine Geschichte des Kolonialismus, Stuttgart 1996.

Vogt, Michael (Hg.): Georg Weerth-Lesebuch, Bielefeld 1996.

White, Hayden V.: Tropics of Discourse.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Baltimore 1978.

조셉 콘라드: 『어둠의 속』, 라영균 역, 민족문화사 2000.

고부웅 엮음: 『탈식민주의 — 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도서출판 창, 1995.

<Zusammenfassung>

Erinnerungen aus kolonialer Herrschaft und postkoloniales Erzählen

— Am Beispiel des *Kolumbus*-Romans von H. Ch. Buch —

Hong-Bae Lim (Seoul National Univ.)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Hans Christoph Buchs Roman *Rede des toten Kolumbus am Tag des jüngsten Gerichts* (1992) unter dem Gesichtspunkt des postkolonialen Diskurs zu analysieren. In diesem Roman wird der Konquistador Kolumbus in verschiedene Romanfiguren inkarniert, die als Romanhelden und zugleich als Erzähler eine Art Doppelgängerrolle spielen. Die Romanhelden erscheinen als Täter, die die Gewalttat Kolumbus' auf verschiedene Weisen wiederholen. Damit werden Geschichten der kolonialer Herrschaft erzählt, die von der eurozentrischen Geschichtsschreibung ausgeschlossen sind. Die dadurch widerrufenen Gegen-Erinnerungen zeigen fünfhundert Jahre Unterdrückung auf. Die erzählte Zeit besteht aus unendlichen Ketten von beunruhigter Gegenwart, die wiederum die Identität des europäischen Subjekts in Frage stellen. Auf diese Weise erweist sich die Kolonialisierung des Nicht-Westens als Devastation desselben und Auspflanzen der Gewaltherrschaft. In diesem Sinne entspricht das postkoloniale Erzählen dieses Romans der Erzählstruktur von Joseph Conrads Roman *Heart of the Darkness* (1902), der vor fast hundert Jahren tiefsinnig in die dunkle Kehrseite der zivilisatorischen ‚Idee‘ des Westens einblickte.